

» 2009년 08월 20일 (목) 18:59

“핵 대국의 결절점에 있는 한반도와 일본열도”기자간담회

“평화와 사업을 하는데 목적”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핵 대국의 결절점에 있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라는 주제로 화성스파월드 도시개발사업의 한스월드 회장 전재천 회장과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코마츠 아키오씨의 기자 간담회를 20일(목)가졌다.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코마츠 아키오씨는 현재에서도 우수한 기업으로 손꼽히는 코마츠 전기산업(주)의 창업사장이다.

이번 간담회는 코마츠 아키오씨와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의 내용 중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상.하수도 수질관리 품질을 개발했다. 현재 톱 브랜드다” “시대변화에 맞춰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평화를 사업화 하는데 목적”을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열도와 한반도는 핵 확산시대를 맞이했다” “평화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성에 한국 중국 일본을 하나로 테마파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화성도시스파개발사업 한스월드 회장 전재천씨는 “테마파크단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20세기, 21세기 현실과 가상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과 사람의 신뢰관계를 만들어 평화의 발원지를 건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슬기로운 지혜에 의해 탄생되는 논의 내용을 세계로 확대하고, 화합하며, 우의적이고 양보하는 평화사업을 만들고, 분쟁지역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협조와 지지에 힘써주신 화성도시스파개발사업 한스월드 회장 전재천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객원) 배지혜 기자